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 조경 선생 묘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포천시향토유적 제42호
- 명칭: 조경 선생 묘
- 수량/보유종별: 1식
- 소유자(보유자): 조장형
- 소재지: 신북면 만세교리 산 1-1
- 지정년월일/고시년월일: '94. 5. 2
- 관리단체/관리무자: 조장형
- 조경은 1586년(선조19년) 봉

### 백성 원성 사는 호패법 혁파 주장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 1-1에 위치한 조경 선생 묘.

사 익남의 자로 출생, 포천시 신북면 가재리에서 살았다. 본관은 한양이고 세종조에 우의정을 역임한 연의 8세손이다. 자는 일장, 호는 용주이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특출하여 주위에서 기재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1612년(광해4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정인홍, 이이첨의 발호로 광해군의 난쟁이 도를

더해가자 문과에 등과하여 정계에 진출할 것을 단념하고 영남 거창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후 유일로 천거되어 형조 좌랑 목천현감등을 지내고 1626년(인조4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장인 지평 등을 거쳐 교리 헌납등을 역임한 뒤 사가독서 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대왕이 강화로 출행하면서 세자를 호남지방에 보내 민심을 수습하고 모병토록 하는데 세자와 동행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1626년(인조4년)부터 호패법을 시행하였는데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자 잠곡 김육과 함께 호패법을 혁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세익스피어 에세이

## 요정의 여왕과 당나귀의 결합의 의미



박정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세익스피어가 『한 여름 밤의 꿈』에서 가장 예로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숲의 요정들의 여왕인 티타니아와 직공 보름과의 성애 장면이다. 아름다운 요정의 여왕과 당나귀 탈을 쓴 반인반수 상태의 보름과의 결합은 즉흥적인 성적 충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사이의 반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주의 음의 세력을 대표하는 티타니아가 양의 세력의 상징인 오베론의 사랑을 거부하는데서 시작되며, 오베론은 그녀에게 복수하려고 재미있는 장난을 꾸민다.

오베론의 복수는 티타니아로 하여금 당나귀로 변신한 보름에게 첫 눈에 반하게 만들어서 그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여 완성된다. 오베론은 킨스 일행이 숲에서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여왕 히폴리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연극을 연습하는 도중에 보름을 당나귀로 변신시켜버린다. 오베론은 티타니아의 눈에 사

는 것이다.

오베론이 티타니아의 반발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의 눈에 사랑의 묘약을 떨어뜨리며 위우는 주문에는 성적 능력이 크다고 일컬어지는 산돼지, 싹쟁이, 곰, 표범, 털이 많은 수레박이 나온다. 이 야생 동물들은 성적 악마연극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보름이 변형을 통해서 변신한 당나귀는 강하고 기다란 성기를 가진 동물로 일컬어져 왔다. 문제는 흥취스러운 동물들에게 강하게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티타니아의 이미지는 매우 목가적인 이미지를 가진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성적 존재라는 것이다.

통상적인 성적 관계는 거칠고 합선 남성성의 소유자가 부드럽고 아담하고 가냘픈 여성을 정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베론이 연출하는 풍요세 의식은 정반대이다. 그는 풍요세의 제사장으로서 그와 성적 관계를 거절했던 티타니아로 하여금 그녀의 무의식적 욕망을 과기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고자 한다. 괴물 같은 당나귀가 시적인 티타니아에게 강간을 당하게 하는 역할이 가득 찬 이미지인 것이다. 이 순간의 티타니아는 더 이상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이 없는 색스의 어두운 세계로 강렬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농염한 성적 절정을 보여준다. 티타니아가 보름을 껴안고 애무하는 모습은 남녀간의 성적결합의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잠자리에서 요정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기다랑고 가냘픈 팔로 마치 등나무 놀이 느낌나무를 휘어잡 듯이 감미롭게 껴안는다. 그녀는 몰아지경에서 성애를 즐기는 여인처럼 "내가 열어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모르시죠!"라고 토로한다. 그녀가 거의 강제적으로 침실로 끌어들여 보여주는 반인반수 상태의 보름과의 결합은 인간의 의식과 문명적 정태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디오니소스적 제의의 원형의 회복을 의미한다. 도덕이나 윤리, 법, 그리고 사회 계급적 갈등에 의해서 형성된 성적 편견은 인간의 자연성을 가로막지만 보름이 빠져있는 꿈이나 티타니아의 눈에 떨어뜨린 꽃 즙으로 만든 사랑의 묘약이 창조한 마술의 세계에서 연인들의 욕망은 자유로워진다. 큐피드의 화살은 성적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는 연인들은 자신의 의식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맹목성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 티타니아의 보름과의 성적결합은 테세우스의 강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에 잠재할 수 있는 불모성이나 피상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은유적 제의이다. 히폴리타의 사랑이 정략적 거래에서 멈추어서는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줄 진정한 성적 결합에 이를 수 없다. 히폴리타의 대리자로서의 티타니아가 꿈속에서나마 보름과의 몰이적 성적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테세우스와의 결혼에 이루어질 다산의 의식을 전조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

“ 랑의 묘약을 발라 일어나는 순간 처음 보는 대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당나귀로 변신한 보름의 모습을 보고 다른 킨스 일행들이 출렁랑을 치자, 자신의 변신을 모르는 보름은 용기를 자랑하듯 당나귀의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그의 피기스러운 목소리는 사랑의 묘약을 바른 티타니아에게는 달콤한 목소리로 들리고 그녀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된다. ”

실체가 없는 요정들에게 성적 욕망의 소유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테네의 현실과 오베론의 숲을 은유적으로 관련시키고 하는 세익스피어의 극적 전략이다. 티타니아가 사랑의 묘약의 영향으로 발정난 동물처럼 만드는 것은 매우 희극적 효과를 자아내지만, 그것을 넘어서 풍요제적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아테네 궁전의 지배자인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정략적 결혼은 사랑의 자연적 발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의 상징인 오베론과 티타니아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나타내주고 한다. 오베론은 우주의 양기를 상징하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음기를 대표하는 티타니아의 모습에 의한 성적 불만족이 보름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도록 연출하

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요제적 목표로 하는 것은 문명적 일상성이나 경직성에 의해서 상실되었거나 고갈되어가는 생식력과 성의 자연성이다. 테세우스가 결혼하고자 하는 히폴리타는 아마존의 전사들을 대표하는 여영으로서 그녀의 과거의 아마존은 연인들이 친근하게 처리했던 풍요, 수태, 임신 그리고 출산의 신비를 지닌 여성적 세계이지만, 이제는 남성적 거래와 돈벌이에 대한 불안정한 비유를 통해서만 오베론에게 이해될 수 있다. 티타니아의 보름과의 성적결합은 테세우스의 강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에 잠재할 수 있는 불모성이나 피상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은유적 제의이다. 히폴리타의 사랑이 정략적 거래에서 멈추어서는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줄 진정한 성적 결합에 이를 수 없다. 히폴리타의 대리자로서의 티타니아가 꿈속에서나마 보름과의 몰이적 성적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테세우스와의 결혼에 이루어질 다산의 의식을 전조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한국 정치는 또 한 차례 정당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일종의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식의 정략결혼이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동지애나 신념이 자리할 수 없다. 풍요제가 가지는 농염한 사랑의 진정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당원이나 의원들 간의 진정한 정치적 풍요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음양의 조화를 한국정치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교육에세이 29

##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정주  
포천여자대학교 교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은 귀중하며, 빠르다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에 반비례하여 시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삶이며,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청소년기에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사회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약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양태 중에서 나누는 삶, 즉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것은 이기주의적 삶의 형태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봉사주의적 삶이란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보수를 바라지 않는 기쁜 마음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글자 그대로 자신이 원하여(자원),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는 인간의 행

동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즉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다름,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생활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베푸는 마음이 있는 한 나눔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마음을 함께 나눔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흔히 얼른 생각하면, 나눠 가질수록 줄어들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눔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눔이란 다른 누군가에게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베풀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일상의 행복함과 성취감을 맛본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마다

자신이 성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취한다는 것은 자신감, 자신에 대한 긍정감, 자아 존중감을 넓혀주게 되며, 아울러 감사와 성취는 항상 비례하는 것인데,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행위 또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송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것보다 향기로운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생명력에 있고, 그 마음 씩씩함에 있으며, 그 생각의 깊이와 실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이 손길을 건네고 옳은 일이라면 묵묵히 하고야 마는 사람에게서는 큰 힘이 전해져 오는데, 그것은 강한 실천력과 타인을 해하려 보살피는 따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야 합니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가슴은 따뜻해 집니다.

저는 여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존재의 의미와 자기존중의 정신을 깨닫기 바라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성을 함양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받는 손'보다 '주는 손'이 보다 '축복된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학생들중에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남의 어려운 일을 돕는 것만도 아닙니다. 외롭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미소를 띄고 다가가는 것부터가 바로 봉사하는 마음가짐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 이웃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같이 하는 것 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 '같이 나누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여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이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님의 풍성한 실명절을 기원합니다

평소 우정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고객여러분께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우체국장 최성영

영업과장 오호택 우편물류과장 김영주 경영지도실장 정숙자

포천송우체국장 유효현

포천영북우체국장 심재열

포천일동우체국장 박종화

포천내촌우체국장 조백연

포천가산우체국장 유명진

포천관인우체국장 유경조

포천군내우체국장 이병업

포천신북우체국장 이승우

포천창수우체국장 정홍섭

포천영중우체국장 이병국

포천이동우체국장 김주섭

우리 포천우체국 전 직원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EVER RICH EVER RICH EVER RICH EVER RICH 언제나 든든한 우체국금융 에버리치(EVERRICH) EVER RICH EVER RICH EVER RICH EVER RICH